

민주연구원 '2026년도 예산의 5가지 성과(Five Ups)'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송창욱 부원장)은 12월 4일(목), “2026년도 예산의 5가지 성과(Five Ups)”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송창욱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새 정부의 첫 정기 예산 728조 원이 확장재정으로 편성되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미래경쟁력을 강화하며 세입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예산을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 평가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5년 만에 준수했는데, 이는 최근 20년 동안 단 3차례뿐인 주목할 만한 국회 성과”라며 정치적 측면에서도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을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2026년도 예산에 대해 경제, 민생, 재정, 절차 측면에서 5가지 성과(Five Ups)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Growth Up(경제성장을 반등) : 총지출 증가율(8.1%)이 명목 성장률(3.8%)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등 정부가 경제성장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 Future Up(미래경쟁력 강화) : R&D 예산의 경우, -15% 삭감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역대 최고 수준인 20% 증액하며 미래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설명했다.
 - Bottom & Middle Up(모두를 위한 성장) : 10개군 농어촌에 대해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예산 2,341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본사회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 Money Up(세입기반 마련) : 前 정부는 3년간 총 -70조원 부자감세를 시행한 반면, 새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을 통해 38조원(정부안 기준)의 세입기반을 마련했다.
 - Trust Up(법정시한 준수, 여야 합의 처리) : 여야 원내대표 주도 하에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5년 만에 준수했다.

-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2008~2011년 4년 연속 예산안 여야 합의가 실패하고 최루탄, 전기톱, 해머 등 다양한 폭력수단이 국회에 동원된 적도 있었는데, 올해처럼 여야가 제때 대응적으로 예산을 양보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도 여야 예산 협상은 늘 지난하고 어려웠는데, 올해는 여야가 법정시한도 준수하고 새 정부 첫 예산의 총액을 유지시켜 주는 등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한 모범적인 예산안 처리 사례”라고 설명했다.